

**칼 럼**

# 창조형 융합 건설교통 R&D의 시작



신혜경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우리에게 건설·교통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 원조를 받던 아시아의 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효자 산업이라는 긍정 이미지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저부가가치·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부정 이미지가 그것이다. 2010년 이후 해마다 약 4,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건설교통 R&D에 투자되었고, 그로 인한 연구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교통산업이 구식(舊式) 산업처럼 비취지는 현실은 안타까운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교통 R&D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은 약 4,160억원으로, 올해 R&D 투자의 가장 큰 키워드는 추격형 R&D가 아닌 “창조형 융합 R&D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급성장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첨단·융합형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설기술 혁신과 첨단도시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향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첨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철도교통 연구 개

발과 항공 선진화를 통한 친환경·융합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개발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실용화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나 창조형 융합 R&D 기술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첨단 건설교통 R&D 연구 성과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건설·교통산업이 21세기 첨단 융합의 시대에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한 기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앞으로 건설·교통 분야가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시대 국가 新성장 동력으로서의 긍정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기대해본다. CERIK